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2025학년도 캡스톤디자인 교내 경진대회
:양치잘해조 팀 ‘최우수상’ 수상

2025학년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캡스톤디자인 교내 경진대회가 11월 27일(목) 컨버전스홀 209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3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시제품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치위생학과 교육치위생학(종합설계) 과목의 ‘양치잘해조’ 팀은 “이동노동자의 구강관리를 위한 편리한 구강관리 기기 개발”을 주제로 시제품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민솔, 김서윤, 김세홍, 김태훈, 박희수, 이예경, 추연서 학생으로 구성된 양치잘해조 팀은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구강관리 접근성 부족과 낮은 실천율, 제한된 휴식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활용 가능한 1회용·워터리스 기반 구강관리 시제품을 고안해 실용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다음)



수상 학생들은 “팀원들과 함께한 활동이어서 더 값진 결과였고, 협업이 있었기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시제품을 더욱 발전시켜 실제 제품으로 출시해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편리하게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시제품 제작을 넘어, 구강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더불어 학생들에게는 실무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총 23개 팀이 본선에서 경쟁을 펼친 가운데, 최종 11개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중 치위생학과 교육치위생학(종합설계)에서 본선에 출전한 두 팀이 모두 최우수상에 선정되며 학과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